

Dubai유, 2달만에 31달러대 하락

석유공사, WTI 및 Brent유 동반 하락 ... 이라크 정정불안 완화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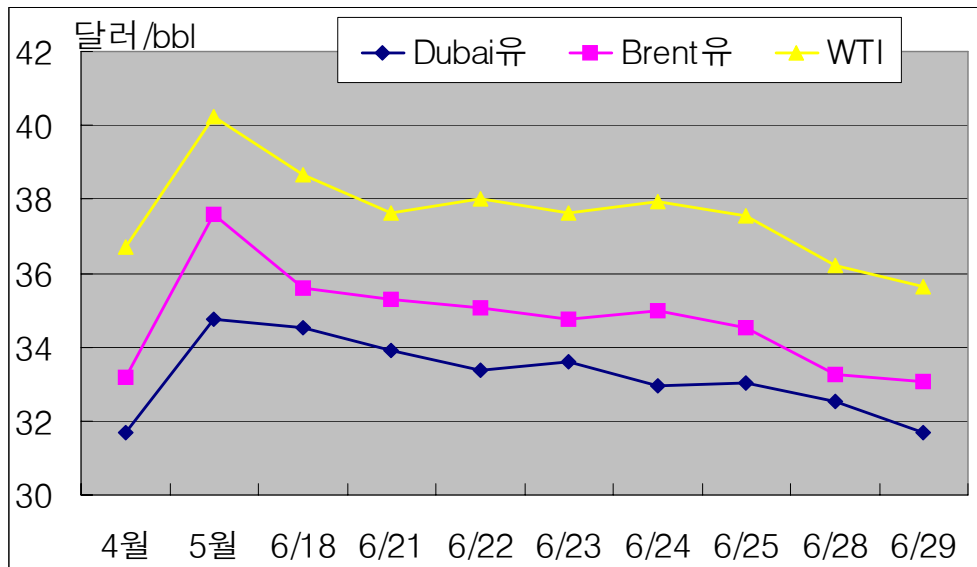
Dubai유가 2달여만에 31달러대로 떨어지는 등 국제유가가 큰 폭의 하락세를 지속했다.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6월29일 현지에서 거래된 중동산 Dubai유는 전날보다 0.84달러 하락한 배럴당 31.69달러를 기록하며 4월22일 31.68달러에 거래된 이후 약 2개월만에 31달러대로 급락했다.

미국 서부텍사스중질유(WTI)는 35.62달러에 거래돼 전날보다 0.60달러 떨어졌으며 북해산 Brent유도 0.21달러 하락한 33.05달러로 장이 마감됐다.

뉴욕상품시장(NYMEX)의 WTI 8월물 선물가격과 런던 국제석유거래소(IPE)의 Brent유는 각각 0.58달러, 0.59달러 떨어진 35.66달러, 33.1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추이(2004)



석유공사는 “미국의 원유 재고 증가와 이라크 정정불안 완화에 대한 기대감으로 석유 수출이 안정적인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세를 지속했다”고 분석했다.

<화학저널 2004/07/01>